

서평

이라크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향후 이라크 정치질서의 변화를 중심으로

인 남 식(외교안보연구원 겸임교수)

21세기 초두의 국제정치를 관통해 온 최대 이슈는 역시 이라크였다. 냉전의 해체 이후, 후쿠야마류의 역사완성 담론이 미국을 중심으로 힘을 얻어갔다. 그러나 영구 평화정착을 기대했던 환호성은 오래가지 못했다. 헌팅톤의 문명담론이 마치 자기충족적 예언으로 성취되듯 이제 이슬람권과의 대립이 가시화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9·11은 모든 국제 정치 질서를 송두리째 바꾸어놓았다. 본토를 처음으로 공격받은 미국 으로서는 이는 냉전시대 어떤 테러리즘보다 훨씬 더 충격적인 사건이었다.

9·11을 겪은 후, 부시 대통령은 완전히 달라진 대외정책을 선보였다. 소위 부시 독트린(Bush doctrine)이라 불리우는 강력한 미국의 개입주의였다. 공세적 현실주의(offensive realism)을 통한 선제공격, 패권적 일방주의(hegemonic unilateralism)을 양대축으로 하는 부시 독트린은 유엔과의 갈등, 그리고 고전적 대서양 동맹의 균열을 감수하면서까지 이라크 전쟁을 추동시켰다.

그러나 전쟁의 명분이었던 대량살상무기(WMD) 보유의혹은 듀얼퍼 보고서(Charles Duelfer Report)에 의해 부인되고, 후세인 정권과 알

카에다 연관설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면서 미국은 이제 유일하게 남은 전쟁명분인 민주화 정착에 온 힘을 기울이게 되었다. 이는 자연스럽게 과연 향후 이라크 정치재건 및 국가형성과정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에 관한 지대한 관심과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결국 논쟁의 핵심은, 이라크의 민주화 및 국가형성이 가능할 것이라고 하는 낙관론과, 그 역의 주장인 이라크 분할, 즉 종파, 인종별로 이라크를 해체하여 각기 독립국을 세워야 한다는 비관론 사이에서 일어난다. 이러한 낙관론과 비관론의 논지를 정확히 드러내고 있는 두 책이 바로 낙관적, 당위적 견해를 설파한 조셉 브로드(Joseph Braude)의 『*The New Iraq*』와, 이라크의 분할로 갈 수밖에 없음을 주장한 리암 앤더슨(Liam Anderson)과 가렛 스탠스필드(Gareth Stansfield)의 『*The Future of Iraq*』이다.

브로드는 이라크 출신 유대인 집안에서 태어났다. 아랍어와 페르시아어를 전공하고 이슬람 역사를 공부한 비즈니스 컨설턴트의 입장에서 바라본 향후 이라크의 전망을 내놓았다. 그는 New Iraq에서 이라크 새 국가 건설의 실현 가능성 차원이 아니라 당위론적 차원에서 접근했다. 즉 이라크의 민주주의 정착 및 공고화는 세계 질서 안정과 석유 수급을 위해 필수적인 과정을 의미하기 때문에 반드시 정착시켜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그는 지난 30여 년간의 이라크의 바트 정권은 사담의 화육(化肉, incarnation)이었다고 규정하였다. 다시 말해 이라크와 사담 후세인은 동일시되어왔고, 다른 정치적 대안이란 존재하지 않았음을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사담이 무너진 지금은 새로운 형태의 공백상태가 도래했음을 상징하는 것이며, 이 공백상태가 길어질 수록 고통의 체감도는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하기 때문에, 이 공백을 서구에 의해 선도되

는 민주주의로 채워 넣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에 의하면 이를 채우는 작업이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 향후 이라크 및 중동질서 전체의 재편 구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진다.

이를 전제로, 브로드는 이라크 국가형성 논의를 기능주의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공백상태의 이라크 내부에 존재하는 각 정파와 세력들, 특히 사회학적 계급 및 구성 요소들의 분포 파악을 주장한다. 면밀한 내부 역학관계의 분석을 통하여 달성 가능한 국가형성 과정의 공통분모를 찾아보자는 입장이다. 이에 대한 일환으로 그는 주로 경제적 역학관계, 그리고 문화적 배경 등을 최대한으로 활용하는 실천적 굿 거버넌스(good governance) 전략을 제시한다. 궁극적으로 이라크의 장래에 관하여 낙관적인 전제 위에 서 있다. 13년간의 금수조치, 나아가 30년간의 철권폭압통치로 인해 쑥대밭이 되었던 이라크 재건 및 민주주의 정착은 쉽지 않은 과제이긴 하지만, 이라크가 가지고 있는 역사적 잠재력과 문명사적 힘은 이러한 장애를 극복할 수 있으리라 낙관하고 있다. 나아가 이라크의 성공적인 '재구성(reconstruction)'은 중동 전역의 민주화를 위한 초석이 될 수 있음을 브로드는 확신하고 있다.

이라크가 가진 잠재력, 그리고 중동에서의 중요한 좌표 등이 반영된 브로드의 낙관적인 분석은 분명히 기분 좋은 전망이긴 하다. 그러나 그의 논리 전개에 있어 몇가지 비약이 발견된다. 이라크 재구성을 위한 굿 거버넌스의 핵심은 사담의 바트주의를 완전히 제거하고, 이슬람 지도자를 전면에 내세워 모든 국민들의 공통적 정체성인 종교준거성을 강조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같은 이슬람 내부에서도 다양하게 분기되는 종교적 분파주의에 관하여 간과하고 있다. 순니와 시아로 대별하는 이라크 아랍인들의 상호 반목과 불신은 간단히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사담의 철권 통치 당시 집권 순니 티크리트 부족연합에 의해 오랜기간 핍박을 받아왔던 시아 다수와 순니 일부 세력은 단지 이슬람이라고 하는 이유로 정치적 동맹관계에 쉽게 접어들 수 있는 계제는 결코 아니다. 오히려 종교적인 신념에 기반하는 정치적 입장차는 국가분열로 이어지는 핵심적 요인이 될 가능성이 큰 것이다.

또한 브로드가 주목하는 이라크의 부존자원과 걸프에서의 중심적 입지 역시 긍정적이기보다는 부정적 도전요인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크다. 경제적으로 매력적인 지역인 이라크는 경제적인 동기에 의해 오히려 인근 각 국가 및 역외 세력들이 끊임없이 개입할 여지를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그가 이야기하는 ‘이라크의 세계화를 통해 얻어지는 이익과 산물’ (profit and gain in Iraq’s globalization) 은 석유 수출에 의존하는 일종의 ‘지대국가(rentier state)화’ 와 필연적으로 연결된다. 지대국가화는 - 지아코모 루치아니(Giacomo Luciani) 등의 연구결과에 굳이 의존하지 않더라도 - 권위주의 국가로 치달아가는 중요한 토양이 될 것이라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가시적인 잠재력과 경제적 매력은 오히려 이라크의 운명을 부정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다는 점에 관한 면밀한 분석이 부족한 아쉬움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브로드의 기능주의적 접근은 이라크를 통한 중동 평화 구축의 돌파구 마련이라는 새로운 화두를 적극적으로 던짐으로써 이 지역에 관한 희망과 기대를 되살리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반면 영국 출신의 앤더슨과 스탠스필드는 『*The Future of Iraq*』에서 이라크의 미래에 관한 부정적인 진단을 내어놓는다. 결국 이라크는 북부 쿠르드와 중부 순니, 그리고 남부 시아파로 3분되는 국가 분할로 전개되리라 예측하고 있다. 이는 미 외교협회의 레슬리 젤브(Leslie

Gelb)의 '이라크 3분할론'이나, 저명한 국제정치학자인 스탠리 호프만(Stanley Hoffman)의 '미국 즉각 퇴각론'과 연동되어 있다.

이들의 논리는 단순하다. 먼저 역사적-정서적인 내부 균열요인이다. 북부 쿠르드족은 그동안 사담 치하에서 상상할 수 없는 고역압을 받아 오며 생존해왔다. 이들은 북부 유전지대의 아랍화(Arabization) 전략에 의거 대부분 동북 산악지대로 축출되어 왔다. 특히 1988년의 안팔작전(Anfar operation)은 쿠르드마을 5000여개를 초토화시켰고, 많게는 18만명의 쿠르드인이 화학생물학 무기에 의해 숨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저자들은 쿠르드를 탄압했던 순니파 기존 집권세력과 쿠르드족이 어떻게 하나의 국가를 유지할 수 있는가 하는 본원적 질문을 던지는 것이다. 또한 남부 시아파 역시 인구의 다수(60퍼센트 이상)를 점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사담의 바트 정권하에서는 전혀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했었다. 이제 민주화의 여정에서 시아파가 선거를 통해 집권하는 것은 명약관화한 상황에서 기존 집권세력이었던 순니의 박탈감은 우리의 상상 이상임을 제시하고 있다. 현재 팔루자 및 사마라 등의 순니 삼각지역에서 벌어지는 무장투쟁은 이러한 상실감의 터를 파고든 외부 저항세력과 연대의 결과임을 저자들은 주목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아쉬울 것없는 시아는 굳이 순니 및 쿠르드와 복잡한 요소를 모두 안고 하나의 나라를 고집할 필요가 없다. 또한 쿠르드는 장구한 염원이었던 쿠르드독립국가 건설이라는 꿈을 계속해서 가시화할 가능성이 크며, 박탈감에 있는 순니는 어떻든 현재 정황에 도저히 동의할 수 없다는 점에서 내전 또는 국가분리로 갈 가능성이 크다는 유추가 나오는 것이다. 만일 미국이 강력하게 주장하는대로 이를 하나의 나라로 묶어놓으려 한다면 결국 제2의 사담 같은 강력한 권위주

의 폭압정권이 출현할 수 밖에 없다는 비관론이다.

두 번째는 외부 개입의 요소이다. 쿠르드의 자치독립을 지원하는 이스라엘과, 이를 반대하는 터키 및 이란은 이 지역의 불안정성 증폭에 일조하고 있다. 순니 세력의 불만을 파고든 사우디 아라비아 및 인근 아랍국가의 저항세력들은 민주화 일정자체를 붕괴시키려는 투쟁에 진력하고 있다. 또한 어떤 형태로든 시아파의 집권이 예측되는 상황에서 이란은 같은 시아파 정치체제와의 향후 연대를 펼치기 위한 적극적 구애작전에 나서고 있다. 이러한 역내외 역학관계가 맞물리면서 이 지역의 안정성을 크게 해치고 있다는 설명이다.

결국 이라크의 민주화를 추진하는 미국의 입장에서선 현재 커다란 딜레마에 봉착해 있는 상황이다. 즉 예정된 민주주의 정착 프로그램에 의해 선거 및 헌법제정의 과정을 거쳐 민주주의 국가를 수립한다면 이는 곧 시아파의 집권을 의미한다. 이는 다시 이란 혁명정부와 이라크와의 전략적 연계의 가능성을 높여주며 양자의 연대는 미국의 대 중동 정책의 뿌리를 흔들 수 있는 강력한 반미 연대세력으로 화할 가능성을 상존케 한다. 미국으로서는 향후 수립될 친미 온건 시아 정권을 이란과 유리시키기 위해 진력할 것이고, 지난번 바그다드 외곽 사드르시티 협약(arms for cash deal, 저항세력의 무기를 사는 등 유화정책을 통해 무장세력의 영향력을 해체하고 지역의 발전 및 원조기금 제공)과 같은, 반대급부가 주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이런 대 시아파 정책은 쿠르드와 순니의 소외감을 상승시킬 것이며, 결국 각 정파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며 ‘하나의 이라크’에서 분리되어 나갈 것이라는 비관적 예측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다.

앤더슨과 스탠스필드의 『the Future of Iraq』는 엄청난 반향을 불러

일으켰다. 미국의 네오콘들은 연일 이 책에 대한 비판에 열을 올리고 있으며, 심지어는 도서관에 소장될 가치조차 없다는, 다소 지나친 폄하까지 나오고 있는 형편이다. 반면 중동 전문가들이나 외교관들은 이들의 분석에 대체적으로 동의하며 미국의 대 이라크 구상에 어떤 형태로든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게 하는 지렛대로 삼고 있다.

결국 이 책의 핵심은 ‘하나의 이라크’가 가능할 것인가의 문제로 귀결된다. 이 가능성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미시간 대학의 중동역사학자 후안 콜(Juan Cole)은 미국의 대 이라크 정책의 무모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저자들의 가정인 이라크 균열 구조에 관해서는 동의하지 않고 있다. 즉 84년동안 유지되어 온 하나의 이라크는 나름대로의 공고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고, 또 수니, 시아, 쿠르드는 이라크 내부에서 부족간, 종파간 전략적 제휴관계 및 결혼 등을 통해 결합(intermingled)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를 선부른 분열의 요소로 보는 것은 적합하지 못하다는 견해를 내놓고 있는 것이다.

저자들은 결론적으로, 인위적인 국경분할과 국가건설이라는 식민통치의 유산이 21세기에 계속해서 자리잡아온 대표적인 사례가 이라크이고, 이를 국경획정 유산 속에 다시 병합시켜놓으려는 시도 자체가 역사의 흐름을 막는 것이라는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앤더슨의 학문적 배경이 되는 지정학적 관찰 포인트에 과도하게 집중된 것이라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 없게 한다. ‘정치는 생물’이라는 속성을 간과했다는 점, 즉 불가해한 부분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면밀한 모든 가능성 분석 없이 선부르게 분할을 점치는 저자들의 결론에 관한 회의론과 비판이 급증하고 있는 이유이다.

현재로서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이라크 정황은 국제정치질서

의 핵심적 요소로 자리잡고 있다. 이라크 평화구축은 그 자체가 국제평화구축의 시금석이 될 수 있으며, 이라크의 실패는 결국 패배주의 및 불안정의 확산에 다름아닌 것이다. 낙관론과 비관론이 극적으로 교차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선부른 기대와 절망이 아닌, 이라크 국민의 평화와 안전, 그리고 국제질서의 평화구축이라는 두가지 열매를 모두 얻을 수 있는 조심스러우면서도 체계적인 분석과 전략이 시급한 시점이다. 결국 브로드의 『*the New Iraq*』와 앤더슨과 스탠스필드의 『*the Future of Iraq*』는 서로 상이한 관찰과 분석을 독자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이라크 문제에 대한 복잡성을 다시 한번 각인시켜 준 셈이다.*